

양주별산대놀이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인 양주별산대놀이는 250여년 전부터 해마다 4월 초 파일과 5월 단오, 7월 백중, 8월 추석에 주로 연희되고 기타 대소 명절과 가뭄에 기우제를 지내면서 행해졌던 8과장 8경의 연희로써 풍요와 다산, 남녀의 갈등, 양반에 대한 풍자, 서민생활의 빈곤상 등 당시의 현실폭로와 특권계급에 대한 반항정신을 나타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5과장 3경 애사당 벼고놀이



서민생활의 애환과 인신매매 등 당시 사회의 타락상을 보여주는 연희로서 왜장녀의 배꼽춤속에는 인생의 희노애락이 담겨 있다. 애사당춤과 말뚝이, 완보가 북을 치며 재담을 하는 것이 이 과장의 백미이다.

제7과장 2경 포도부장놀이



늙은 언청이 양반, 샌님이 소첩을 데리고 사는데 포도부장인 관리가 월장을 하여 소첩과 눈이 맞는다. 이를 안 샌님이 포도부장을 나무라지만 권력을 이용하여 소첩을 빼앗는다. 이 과장은 당시 타락한 권력의 한 부분을 풍자한 서민의 연희이다.

악사 - 삼현육각



부산에는 어떤 무형문화재들이 있을까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 제18호 동래야류(東萊野遊) : 민속가면극
- 제43호 수영야류(水營野遊) : 민속가면극
- 제45호 대금산조(大琴散調) : 기악
- 제62호 좌수영어방놀이(左水營漁坊놀이) : 민속놀이
- 제82-1호 동해안 별신굿(東海岸別神굿) : 무속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

- 제2호 수영농칭놀이(水營農廳놀이) : 민속놀이(농요)
- 제3호 동래학춤(東萊鶴춤) : 민속무용
- 제4호 동래지신밟기(東萊地神밟기) : 민속놀이
- 제5호 충렬사제향(忠烈祠祭享) : 제의
- 제6호 부산농악(釜山農樂) : 농악
- 제7호 다대포(多大浦)후리소리 : 민속놀이(어로요)
- 제8호 가야금산조(伽倻琴散調) : 기악
- 제9호 부산영산재(釜山靈山齋) : 불교의식
- 제10호 동래고무(東萊鼓舞) : 교방무용
- 제11호 구덕망게티다지기 : 민속놀이(노동요)
- 제12호 주성장(鑄成匠) : 금속범종제작
- 제13호 사기장(沙器匠) : 백자제작
- 제14호 동래한량춤(東萊한량춤) : 민속무용
- 제15호 불화장(佛畵匠) : 전통불화제작
- 제16호 아쟁산조(牙箏散調) : 기악
- 제17호 화혜장(靴鞋匠) : 전통신제작
- 제18호 부산고분도리걸립(釜山高분도리걸립) : 민속놀이

탈춤으로 추석맛이 전통민속 한마당

2012년 9월 15일(토) 오후 3시
부산역 중앙광장



■ 공연프로그램

- 중요무형문화재 제2호 양주별산대놀이
- 부산광역시지정 무형문화재제14호 동래한량춤
-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 동래야류

주최 · 주관 | 동래야류보존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재보호재단 BSCF 부산문화재단

본 사업은 2012년도 부산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일부지원으로 시행됩니다

양주별산대놀이(15:00-15:40)

출연진

노재영(연출) 유명선(애사당) 고경민(왜장녀)
이상근(완보) 박기운(말뚝이) 김동현(원목)
이윤희(첫상좌) 김순홍(둘째상좌) 이옥중(먹중)
이옥중(먹중) 박진현(움중) 이해윤(포도부장)
김동현(샌님) 김순옥(소무) 손춘식(장구) 한창희(대금)
윤세진(피리) 최수지(피리) 이수현(해금) 홍도기(북)

동래한량춤(15:41-15:55)

출연진

김진홍(무수) 김갑용(무수)
전승환(무수) 배영호(무수) 김동오(무수)
정재욱(팽과리) 공정희(북) 이수진(징)
김향욱(장고) 이유미(호적)

동래야류(15:56-16:35)

출연진

김경화(연출) 김익현·한정숙(진행)
윤준찬(원양반) 이도근(차양반) 이기원(모양반) 김이대(넷째양반)
이돈희(증가도령) 김수근(말뚝이) 이미경(문동이1)
김연희(문동이2) 정현섭(비비양반) 김재규(영노) 정영배(영감)
손심심(할미) 이순규(제대각시)
백정감(팽과리) 이해철(징) 박성호(장구1) 이수진(장구2)
옥금주(장구3) 정재욱(북1) 박민순(북2) 김예신(북3)
손인식(호적) 이동현(기수)
상두꾼(정진화, 이기원, 이돈희, 김이대, 정현섭, 김재규, 정재욱)

동래야류

동래야류는 1967년 12월 21일 중요무형문화재 제18호로 지정된 영남형의 대표적인 탈춤으로 부산의 10가지 자랑거리로 지정된 부산을 대표하는 가면극이다. 양반계급에 대한 풍자와 비판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해학적인 재담과 몸짓으로 엮어지는 한국의 전통적인 연극양식이다.

1930년대에는 탈놀이에 앞서 행해지는 길놀이 행사에 수백 명이 참여하는 앞놀이를 했고 연희과장이 끝나고 나면 참석한 관객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뒷놀이를 질펀한 여흥의 자리도 마련되었다고 한다. 연희 과장은 군무과장, 문동이과장, 양반과장, 영노과장, 할미·영감 과장으로 되어있다.

구성 및 내용

1. 군무과장

모든 연희자가 나와 한바탕 예비적 흥을 돋우기 위해 춤을 추는 과장이다.



2. 문동이과장

대사가 없는 무언극이며 양반의 자손으로써 조상들의 누적된 죄과의 인연으로 불치의 문동병에 걸려 출세하지 못하는 골수에 맺힌 원한과 비분의 통탄을 춤으로써 표현한다.



3. 양반과장

독이 재담의 장으로 무능하고 허례허식에 찬 다섯 양반들이 하인 말뚝이에게 갖은 야유와 모욕과 신랄한 풍자를 당하는 내용이며 말뚝이는 익살과 해학의 수법으로 양반을 여지없이 조롱하며 양반에 대한 평민의 반항을 줄거리로 하는 내용이다.



4. 영노과장

영노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반인반수의 상상의 괴물로서 양반을 잡아먹으면 다시 등천하게 되므로 놀이판에 나타나 양반을 잡아먹기 위한 과장이다.



5. 할미·영감과장

영감과 본처인 할미 그리고 첩인 제대각시가 펼치는 애정의 삼각관계를 다룬 처·첩간의 갈등을 나타내는 것이다.



동래한량춤



예로부터 동래는 천연온천이 있는 관광지역으로 각종 놀이문화가 풍성하였고, 그 중에서도 춤을 중심으로한 풍류꾼들의 예기(藝技)는 일반사람들의 연희수준을 넘어 전문적인 예인으로서 예술적 수준이었다. 특히 동래는 가창(歌唱)이나 음율(音律)보다 춤꾼이 더 성하였고 명무들도 많아서 동래마을이 춤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듯 동래는 동래관아(東萊官衙)에 소속된 아전들과 천연 온천으로 인한 한량들의 방놀음, 그리고 동래권변에 출입하는 풍류꾼들이 함께 어우러져 가무악을 즐기는 예향 지역이다.

특히 동래 한량무는 탈놀음인 동래야류 양반과장의 덧배기춤과 사랑방의 멋쟁이 한량들에 의해 연희되었던 입춤 형식의 굿거리 춤이 더해진 춤이다.

대부분의 민속춤이 억압받는 서민들의 애환이나 서러움, 맺힘의 표현이 강조되는데 반하여 동래한량춤은 인생의 희노애락을 내적으로 승화시켜 절제와 품격, 그리고 영남춤의 호방한 남성무의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으며, 춤 자체의 묘미가 강조되는 전문예인의 홀춤이다.

특징적 춤사위는 도포자락 놀리는 사위, 부채퍼는사위, 부채메고 어루는사위, 연풍대사위 등이다. 북식은 양반들의 출입복인 바지저고리에 도포를 착용한다. 반주음악은 삼현육각 또는 사물악기의 굿거리장단에 구음을 얹어 연주한다.

